

igus, 업계 최초 케이블 체인 재활용 프로그램 실시

케이블 체인이 최대 사용 수명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독일 최대 플라스틱 체인 제조 업체 igus가 이와 관련된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igus green chain-ge' 캠페인을 발표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플라스틱 체인을 이구스에 보내면 확실한 재활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급된다. 한국이구스의 e체인 프로젝트 매니저, 정준희 차장은 이에 대해 '수명이 다하면 일반적인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분없이 버려지는 케이블 체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책임 있는 기업 마인드로 친환경 그린 캠페인에 앞장서기 위한 활동'이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Plastikatlas 2019¹가 밝힌 플라스틱 폐기물의 신제품 재사용 비율은 독일에서도 약 16%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는 오랜 수명이 장점이 되는 기계 산업용 플라스틱 만이 아닌 매일 같이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포함되어 있다.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위한 분쇄/처리 공정(펠릿화)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 소모도 많아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케이블 체인의 폐기 절차는 기계에서 체인을 떼어내 산업용 폐기물에 같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igus의 CEO, 프랑크 블라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동시에 플라스틱 업체로서 함께 책임 있는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igus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에너지 체인 제조 업체로서 독일 본사에선 이미 생산 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99%를 재활용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본사의 활동을 글로벌로 확대한다면, 이는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공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준희 차장은 '수거 조건을 이구스 제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구스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폐케이블 체인이라면 메이커를 불문하고 수용할 계획이며 바우처

¹ Heinrich-Böll-Stiftung &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 PLASTIKATLAS 2019, https://www.bund.net/fileadmin/user_upload_bund/publikationen/chemie/chemie_plastikatlas_2019.pdf

금액 또한 kg 당 1,020원으로 책정해 고객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캡션



사진 PM7119-1

플라스틱 체인 재활용 방법: 1. 체인 세척, 2. 무게 측정, 3. 무게 메모 후 해당 지사 품 작성(recycling.igus.com) 4. 택배 발송

(출처: igus GmbH)



사진 PM7119-2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공정 개선에 기여 하겠다”는 chain-ge 캠페인의 목표를 설명하는 igus GmbH의 CEO, 프랑크 블라제.

(출처: igus GmbH)

¹ Heinrich-Böll-Stiftung &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 PLASTIKATLAS 2019, https://www.bund.net/fileadmin/user_upload_bund/publikationen/chemie/chemie_plastikatlas_2019.pdf

담당 연락처 :

길보라 과장
한국이구스

인천 연수구 벤처로 12번길 42
전화: 032 821 2925
팩스: 032 821 2913
bgil@igus.kr
<http://www.igus.kr>

한국 이구스:

igus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5개 지사, 4,15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igus만의 특수한 엔지니어링 폴리머 소재를 기반으로 모션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e체인, 케이블, 베어링이 주요 품목입니다.

igus, "Apiro", "chainflex", "CFRIP", "conprotect", "CTD", "drylin", "dry-tech", "dryspin", "easy chain", "e-chain", "e-chain systems", "e-ketten", "e-kettensysteme", "e-skin", "flizz", "ibow", "igear", "iglidur", "igubal", "kineKIT", "manus", "motion plastics", "pikchain", "plastics for longer life", "readychain", "readycable", "ReBel", "speedigus", "triflex", "roboLink", "xiros" 는 igus® GmbH 및 igus® Inc.의 등록 상표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